

CT
230.42
06697

권징사역의 구원론적 의의


- 칼빈신학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Discipline

1994
亞細亞聯合神學大學 大學院

組織神學 專攻

李 光 鎬

 고신대학교



DM00001523

1509

권징사역의 구원론적 의의

- 칼빈신학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Discipline

指導 韓 哲 河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년 1월 일

亞細亞聯合神學大學 大學院

組織神學 專攻

李 光 鎬

李光鎬의 組織神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教授

韓哲子

副審教授

副審教授

亞細亞聯合神學大學 大學院

1994년 1월

감사의 말

본 論文을 작성하는 동안 신실한 지도를 해주신 한철하 교수님과 유광웅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정규남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著가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ACTS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실로암 교회 모든 성도들께 사랑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1994년 2월

이 광 호

목 차

I. 서론	4
1. 연구목적및 의의	4
2. 연구방법및 범위	6
II.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性格	9
1. 칼빈신학의 特性	9
(1) 聖經의 절대적 權威	9
(2) 하나님 절대主權思想	11
(3) 人間의 制限性	13
2. 教會의 中心課題로서의 구원	16
(1) 하나님의 擇하신 百姓	16
(2) 成長해 가는 教會	20
III. 教會의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권징사역	23
1. 教會를 유지시키는 권징사역	23
(1) 권징의 내용및 성질	23
(2) 권징의 必要性	26
(3) 권징의 目的	27
2. 말씀사역과 권징사역	30
(1) 秩序와 品位에 대한 명령과 적용	30
(2) 教會의 순결에 대한 명령과 적용	32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쇠의 權能과 시행	35

3. 권징사역에 대한 성화론적 理解	37
(1) 회개와 권징의 상관성	37
(2) 권징사역과 懺悔	39
(3) 善行을 이끄는 단계로서의 권징사역	42
(4) 권징사역의 최종목표로서의 聖化	44
IV. 장로교 헌법속의 권징조례	47
1. 권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47
2. 장로교 憲法들의 실제	48
3. 이명규례에 관한 문제	57
V. 교회의 권징사역 갱신의 必要性和 그 방안	63
1. 권징사역의 재확립의 必要性	63
2. 권징사역의 실질적 有益에 대한 理解	64
3. 하나님의 要求에 응하는 성숙한 교회의 자세	67
4. 敎會와 권징사역의 갱신방안	69
(1) 권징사역에 대한 폭넓은 수용	69
(2) 이명에 대한 법적용 문제	70
(3) 장로회 『권징조례』 개정안	71
(4) 직분자의 갱신운동	74
VI. 결론 및 제언	76
1. 결론	76

2. 요약	78
3. 제언	80
참고문헌	84
영문초록	90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오늘의 한국 교회에는 권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韓國 教會에 권징이 없는 것은 권징하는 권능(power)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¹⁾ 이는 教會가 권징을 시행할 때 敎인들이 그 教會의 권위와 힘을 순수히 認定하여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땅에 基督教이 들어온지 100년을 넘기면서 한국 교회는 聖經이 교훈하는바 質的인 成長은 등한시한 채 숫적증가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금은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의 권징사역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지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지교회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教會들이 뻗뻗히 들어서 있는 都市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 지교회에서 권징사역을 시행하는 도중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을 버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를 쉽게 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거의 권징사역을 범죄 사건에 연루된 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¹ 우병조, 교회정치 및 권징해설, 대구:보문출판사, 1989, p.146.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래의 폭넓은 의미를 경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敎會내에서의 견해가 상충되는자들을 牽制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징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을 본다.

또다른 한편으로 권징사역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자들은 기독교가 조건없는 사랑의 종교임을 무책임하게 주장한다. 그들은 기독교가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화해의 종교이므로 敎회는 모든 罪人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現代의 敎會가 聖經이 교훈한바 진리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기 보다는 세속적 사고에 의해 혼탁해져 있음을 염려하는 이들이 많음이 사실이다. 이 問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敎會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선포에 의한 권징사역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敎會가 올바른 質的인 成長을 견지할 때 비로소 전체 社會 속에서의 참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권징사역은 절대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권징사역의 진정한 意味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本 論文의 目的은 바로 그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권징사역의 목표가 되는 구원론적 의미가 더욱 분명히 밝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者들이 각 敎會에서 그것을 잘 적용토록 하는데 研究의 意義가 있다. 아울러 論者는 이 論文이 막연한 사변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작게나마 우리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이 제시되길 원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論文의 제목이 의도하는 바를 연구하기 위해 칼빈의 見解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6세기, 宗教改革 이후의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이 소위 가시적 敎會를 論할 때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敎會의 권징도 시행되지 못했으며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위선자들도 섞여 있었는데 루터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관용했었다.²⁾ 당시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권징사역을 등한시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敎會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方法을 聖經을 통해 명확히 밝히면서 실제로 교회에 적용하려 애썼다.

어떤 意味에서는 칼빈의 시대와 흡사한 우리의 時代에 칼빈의 권징에 대한 神學的 견해를 잘 살펴보아 우리의 敎會에 적용시켜 보려는 시도는 매우 뜻깊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方法은 존.칼빈의 저술들과 『칼빈의 神學』에 관한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 서적들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칼빈의 저술들이라 함은 『기독교 강요』와 그의 『성경 주석들』 그리고 몇편의 論文들이 주를 이루며, 그에 관한 앞선 연구 결과들도 본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제 I장 『서론』에 이어 本論에 들어가는 제 II장에서는 『칼빈神學에 있어서의 구원론적 性格』을 고찰해 보게 된다. 칼빈신학 자체가 구원

²⁾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서울:풍만, 1985, p.63.

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징사역』 역시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칼빈은 敎會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외적인 도움'(the external means or aids)으로서 설명하고 있다.³⁾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는 권징사역의 의미를 알기 위해 칼빈신학의 特性과 敎會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더불어 전체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구원론적 性格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 III장에서는 『敎會의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권징사역』을 고찰하게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敎會의 가장 본질적 표지로서 이해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과 성례의 敎會를 통한 적용으로서의 권징사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그 권징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敎회를 세워나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권징사역의 敎會를 통한 적용과 함께 그 기본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IV장에서는 『장로교 헌법 속의 권징조례』를 고찰할 것이다. 한국 敎會 장로교는 여러 교단으로 분립되어 있어서 그 憲法들을 한꺼번에 모두 살펴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권징에 대한 실제적 법규정들과 해석 문제를 알아보며 헌법의 실재를 다루어 봄으로써 論題에 접근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또한 『이명규례』에 대해 特別히 다루어 그 重要性을 살펴본다.

제 V장에서는 본 論文에서 연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권징

³⁾ J.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n.d.), vol. IV, 1,1. (이후로는 J. Calvin, Inst. 권, 장, 절로 표시한다.)

에 대한 우리의 편견들을 바로잡아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가에 대해 논술하게 된다. 권징사역은 敎會를 향한 하나님의 命令이므로 우리는 그 사역을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敎會로 자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권징사역의 재확립의 必要性에 따른 그 갱신방안을 중요하게 다룬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들을 記憶하며, 권징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제언함으로써 본 論文이 의도하는 바를 강조하려 한다.

II.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性格

1. 칼빈신학의 特性

(1) 聖經의 절대적 權威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책』을 단순한 歷史的 산물로 보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어떤 倫理的 가치나 그와 동일한 인간적 수준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관은 그렇지 않다. 聖經은 인간의 역사가운데서 人間들의 사고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바깥 즉, 하나님으로 부터 이 世上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부른다.

칼빈신학의 표준은 곧 성경 말씀이다. 그 성경말씀을 통해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제시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敎會를 통해 적용된다. 따라서 기독교의 모든 神學과 信仰은 성경 말씀의 조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啓示된 그 말씀과 조화될 때만 참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성령의 學校다. 거기에는 알아서 有用하고 必要한 것

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알아야 할 重要한 것 以外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⁴⁾

이 聖經 안에 우리 人間이 참으로 알아야 할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는 도저히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재간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으므로(창1:27), 신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롬1:19) 그 신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人間世界에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恩惠의 유일한 方便이 된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단언한다.⁵⁾ 우리 人間은 世界밖으로 부터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어느것 하나 올바르게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더러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참된 敎會의 기초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외적인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에 있다.⁶⁾ 겉으로 보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敎會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인 聖經에 올바르게 기초해 있지 않다면 참된 敎會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모든 직분자들의 권한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하며, 聖經에서 이탈한 권위는 부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권위를 敎會에 끌어들이면 안된다고 했다.⁷⁾ 이는 聖經만이 敎會와 성도의 유일

⁴⁾ J. Calvin, Inst. III. 21, 3.

⁵⁾ J. Calvin, Inst. I. 6, 3.

⁶⁾ J. Calvin, Inst. IV. 2, 4.

한 信仰의 표준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직분자들은 이점에 유의해야 된다. 목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教會에 속한 무리들을 養育해야 하며 저들의 일차적인 의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聖經的 건전한 교리로 教會를 세우는 것이다.⁸⁾ 여기서 말하는 『양육』과 건전한 교리로 教會를 세우는 것은 곧 성경말씀을 통한 권징사역을 뜻한다. 教會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존속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教會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참된 教會로 存在할 수 없다.⁹⁾

권징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대적인 標準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부가되는 모든 것은 허위이며¹⁰⁾ 그 말씀이 권징의 기준과 대상을 설정하기도 하며 시행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教會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인 聖經만이 참된 권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하며 그 성경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각 敎人들의 信仰과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2) 하나님 절대主權思想

아담이래 犯罪한 人間의 삶은 인간 중심의 불안정한 형태로 변모하

⁷ J. Calvin. Inst. IV. 8:10, 23.

⁸ J. Calvin. Inst. IV. 4, 3.

⁹ O. Weber. 칼빈의 교회관. p. 110.

¹⁰ J. Calvin. Tractate Theological of John Calvin, 『De necessitate reformandae ecclesiae』 (교회개혁의 필요에 관하여), 김진수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II, 1.

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人間들이, 그 人間本位의 行態가 '하나님의 主權'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그 인간들은 역사 가운데서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면서 人間 中心의 인본적 사상에 점차 빠져들게 된다.

성경은 그런 사고의 출발이 罪때문이라고 명백히 말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며 그에게 모든 주권을 맡겨야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해야만 人間들이 하나님의 完全한 祝福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는 하나님 그 자신만이 실질적인 모든 主權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주권 사상을 더욱 분명히 외쳤다. 특히 人間의 구원 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教會를 구성하는 회원이 되는 기본 자격인 '선택',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의 경륜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구원 사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그의 몸된 教會에서 당신의 主權이 충분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성자 하나님(The Son of God)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教會의 유일한 머리시며 그의 지배하에서 제정하신 秩序와 政治形態에 따라 모두가 서로 연합하게 된다.¹¹⁾ 즉 그러한 연결에 의해 信者들은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教會를 主權으로 다스리시고 統治하시며, 教會 안에서 권위 혹은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¹²⁾ 그리고 이 권위

¹¹ J. Calvin, Inst. IV. 6, 9.

¹² 教會안에서의 다양한 직분들은 성도들간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직분

는 오직 그의 말씀에 의해서 행사되어야만 한다.

칼빈은 이점에 대해 “성령께서는 敎會政治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주권이나 지배권을 꿈꾸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하신다”¹³⁾고 말한다. 즉, 어떠한 人間이라도 하나님의 主權을 충분히 認定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權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욕망으로써 敎會를 치리하려해서는 안된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主權을 드러내며 적용해야만 한다. 참된 敎會에서는 하나님의 主權만이 영광으로 드러나며 그 가운데 그 百姓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

(3) 人間의 制限性

인간은 그 存在 자체가 有限하다. 능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지음 받은 인간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하나,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들이 오염된 제한성에 갇힌 것은 엄청난 不幸이다.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잘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말한다.

에 따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직분이 있음을 說明할 수 있을지라도 어느 특정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신다. - J. Calvin. Inst. IV. 3, 1 -

¹³⁾ J. Calvin. Inst. IV. 4, 4.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작한다면 기이한 고안품이 이 잘못된 출발에 부착되어 무한한 해독을 퍼트리게 된다.¹⁴⁾

이 말의 의미는 부패되고 有限한 人間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理性과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理性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어디로 향하든지 비참한 허무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⁵⁾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方法을 고안하는 資格이 人間들에게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으며, 그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命命하신 것과 선하다고 하신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분에 맞는 그럴듯한 外形的인 方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¹⁶⁾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百姓들에게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信仰生活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수 없이 많이 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人間들이 자기 아이디어나 노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교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命命에 따라야만 한다.¹⁷⁾ 하나님의 뜻

¹⁴⁾ J. Calvin. Inst. IV. 1, 5.

¹⁵⁾ J. Calvin. Inst. II. 2, 25.

¹⁶⁾ J. Calvin. 『교회개혁의 필요에 관하여』 II. 3.

¹⁷⁾ J. Calvin. 『교회개혁의 필요에 관하여』 II. 1.

에 진실로 순종하는 길만이 人間의 진실한 도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人間觀을 가진 者들은 人間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며 제한적 存在인가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아 그에 依存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者들이 모여 그의 몸된 敎會를 구성하게 된다.

敎會에 속한 信者들은 항상 인간의 그 제한성을 깨닫는 가운데 信仰生活을 해야 한다.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人生을 살아간다고 해도 神的 판단 기준에 따라 자신을 살피고 검증해야만 자기 과신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더욱 낙심하여 마침내 자기의 열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은 모두 사라지고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능력이 人間에게는 없음을 깨닫게 된다.¹⁸⁾ 그래서 칼빈은 이와같이 확증 한다.

하나님의 眞理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요구한다.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能力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며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知識을 가지게 한다.¹⁹⁾

敎會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信者들의 자세는 이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은혜에만 依存하는

¹⁸⁾ J. Calvin, Inst. II. 1, 3.

¹⁹⁾ J. Calvin, Inst. II. 1, 2.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할 자세이다. 教會에서의 政治도 그러하고, 法을 定하며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그렇다. 教會내에서 제거되어야 할 罪의 性格을 규정하는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권징에서 말하는 罪역시 인간들 자신의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척도로 평가해야만 한다.²⁰⁾ 이는 극히 제한된 인간의 理性으로 말미암은 척도는 옳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教會일수록 그 教會에 속한 信者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자신의 無能함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

2. 教會의 中心課題로서의 구원

(1) 하나님의 擇하신 百姓

칼빈의 신학 사상의 주제는 구원론에 있고 그것을 表現하기 위해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오염된 人間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하며, 그 심판으로 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 人間에게는 그 길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 사역을 이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²⁰⁾ J. Calv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First Epistle of John,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Chap. 5 ver. 16. (이후 칼빈의 신약성경 주석은 성경명, 장, 절로 표시한다.)

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의도이다. 인간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人間의 어떤 능력이나 공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속한 問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이 없는 곳에는 참된 敎會가 없다. 聖經은 단순히 사람의 自意에 의한 기관이나 모임을 敎會라고 부르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百姓이 있는 곳에 敎會가 있을 따름이다.²¹⁾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적인 선택이 참된 敎會의 기초가 된다. (Inst. IV. 1,2)

칼빈은 人間이 地球 위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역사상의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敎會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고 한다.

人類史에서 어떤 聖化의 증거를 거의 보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을지라도 우리는 창조 이후로 주님의 敎會가 없었던 때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시대가 종국적으로 完成될 때까지도 주님의 敎會가 없는 때는 없을 것이다²²⁾

여기에서 말하는 敎會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百姓의 무리라는 뜻일 것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敎會에 편지를 하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밝히 말하고 있다. (엡1:4)

創世 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안에

²¹ 이종성, 칼빈, 서울: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p.137.

²² J. Calvin, Inst. IV. 1,17.

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豫定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自己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生命이 있기도 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前에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豫定하셨음을 이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당신의 敎會에 속한 거룩한 聖徒의 무리를 創世 前부터 子女로 삼으심으로 미리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罪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生命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罪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요일5:16)고 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란, 비록 과오는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부터 선택된 자들로 理解된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兄弟들의 失敗는 우리의 기도제목이 된다고 격려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한 우리 형제가 멸망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강철같이 강박한 心情을 가진 자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²³⁾

²³⁾ J. Calvin. 신약성경주석 요한일서 5:16.

칼빈은 이 말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百姓들 중에서 행해져야 할 권징사역이 곧 구원사역의 일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의 子女된 자들로서 이제 영적인 意味에 있어서 새로운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간 사랑의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선택받은 百姓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니다. 비록 이 세상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生活하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그 本質은 이미 天國市民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빌3:20)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肉體 가운데 사는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라고 했으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世上이 나를 대하여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갈6:14)고 고백했다. 완전한 자기포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잘 表現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무리는 이와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敎會 역시 이러한 선택된 고백의 공동체여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항상 영원한 천국에 적합한 성도들의 집합이어야 하며, 이 세상적 소망을 포기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속적으로 양육 받도록 노력해 가야만 하는 것이다.

(2) 成長해 가는 教會

하나님의 교회는 역동적이다. 가만히 정체해 있는 教會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成長을 추구해 가야 한다. 教會라 이름하면서 올바른 成長이 없다면 정상적인 教會로 볼 수 없으며, 참된 成長을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教會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점을 강조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凡事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5,16)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教會가 자라 간다는 점과 그 成長이 모든 교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며, 그렇게 하여 구원을 소유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는 문구는 권징사역의 意味로 해석할 수 있다. 教會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간 사랑의 권면을 적절히 지속함으로써 계속적인 成長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聖徒들 간에 연결성 있는 도움을 意味한다.

물론 여기에서 教會의 成長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교인수가 점차 늘어나는 외적 성장을 뜻하지 않는다. 적어도 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자란다'는 말의 뜻은 어떤 외부적 규모나 敎人の 數를

일컫는 成長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도리어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회의 내적 참된 결속력에 따른 성장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무리인 教會는 이렇듯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만 한다.

칼빈은 에베소서 4:13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한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일순간에 完全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이 教會에서 教育을 받음으로써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²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된 百姓들이 教會에서의 教育을 통해 成長해 가는 것이다.

教會에서의 教育의 目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養育이다. 그러므로 教會에 속한 성도들은 教會의 教育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教育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教育의 대상에는 온 教會의 모든 信者가 포함된다. 목사나 장로 역시 말씀에 依해 教育받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한다. 거기에는 例外가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教會가 올바르게 成長하기 위해서는 목사, 장로등 교회의 지도자들이 成長하는 실질적인 과정속에 있어야만 한다. 만일 지도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自己成長에 관해 소홀히 생각하거나

²⁴ J. Calvin, Inst. IV. 1, 5.

사실적인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다른 敎人들에게 成長을 요구한다면 말이 안될뿐더러 敎會의 참된 成長을 기대할 수 없다.

살아있는 敎會란 그 敎會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자가 계속해서 成長해가는 敎會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敎會는 완벽한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聖經의 교훈을 배우며 진리를 탐구해 갈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地上敎會에서 교사로서의 직분을 가진 목사가 성도들을 敎育하지만, 목사 역시 성령에 의해 敎育을 받음으로 끊임없이 成長해 가야만 하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敎會의 지도자들이 말씀에 依해 成長해 가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갈 때 그 敎會는 올바르게 成長하게 된다.

Ⅲ. 教會의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권징사역

1. 教會를 유지시키는 권징사역

(1) 권징의 내용 및 성질

聖經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惡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그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고의적인 범죄와 특별히 사악한 죄악에 대해서는 容恕가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언급했으며,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의 이스라엘 百姓들은 그런 자들을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聖靈을 거스리거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교만한 자들을 출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오용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百姓 가운데서 사악한 범죄에 빠진 자를 축출해 내는 것은 하나님의 教會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권징에 대해 크게 두가지로 區分해서 이해하고 있다. 첫째는, 教會 가운데서 信者 상호간에 끊임없이 행해지는 권징사역이며, 둘째는 信者가 어떤 사건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教會가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할 징계이다.

이것의 이해를 위해 마태복음 18:15-18을 보자.

15 만일 네 兄弟가 罪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 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教會에 말하고 教會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권징사역의 性質을 發見하게 된다. 잘 성숙하고 좋은 教會는 15절 말씀의 내용대로의 권징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教會이다.²⁵⁾ 물론 이는 계속해서 어떤 범죄가 發生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계속 권고해야 하는 것을 말함은 아니다. 罪된 性品을 소유한 信者들간에 상호 사랑으로 권면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 큰 범죄에 이르기 전에 항상 서로 권

²⁵ 영어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이 본문(15절)이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he two of you.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over"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짓거든 가서 그의 잘못을 너희 둘 사이에서만 지적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너의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 표준새번역에서는,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네말을 들으면 네가 그 신도를 얻는 것이다"라고 번역했다. 이 본문 번역들은 한글개역성경에는 없는 '너에 대하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알렙사본과 BS사본을 따른 것이다: A.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Matthew)(18:15참조) 따라서 우리가 결론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罪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고함으로써 16절의 단계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罪性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임인 教會에는 항상 우리의 기대하는 정도 이상의 問題들이 發生하게 된다.

16-17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징사역과 징계에 속하며, 18절은 教會에 주어진 권징의 실천적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教會生活을 하는중 어떤 범죄하는 성도를 보게 되면 개별적인 권면을 해서 그가 그 권면을 수용하여 회개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것은 해결된다. 그러나, 만일 그 잘못된 자가 명백한 '罪'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웃의 권면을 통한 회개를 거부한다면 두 세사람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권면을 하게 된다. 그 때 그 잘못된 敎人이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역시 더이상 문제시할 必要가 없다. 만일 그 권면도 거부할 경우에는 전체 教會에 그 문제의 해결을 맡긴다.

물론 全體教會의 위임을 받은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체교회와 결정사항이 된다. 그때 그 범죄자가 教會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하면 教會는 그를 용서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教會는 그 者를 그리스도의 教會로 부터 분리하여 심판하게 된다. 특히 17절에서 教會는 개인적이며 은밀한 충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경우에 반드시 간섭해야만 할 실체로 언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6)

물론 教會는 위의 15절과 16-17절의 두가지 내용을 포함한 모든 권

²⁶ H. Ridderbos, De Komst van het Koninkrijk, 하나님 나라, 오광만역, 서울: 엠마오, 1987, p. 454.

정사역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겠지만, 앞의 내용 즉, 15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말씀에 의거하여 철저히 행함으로써 참된 敎會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 모든 信者들은 피차 권면하여 각자의 구원을 촉진해야 된다. 특히 직분을 가진 장로들은 전체 교회와 더불어 敎人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무엇보다 이 일에 주력해야 하며 모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심각하고도 사랑에 넘치는 끊임없는 권고의 사역을 해야만 한다.²⁷⁾

그리고 敎會에 어떤 범죄적인 일이 敎人들에게 생긴다면 즉시 모든 각 성도들과 敎會는 마땅히 聖經의 원리와 그 절차에 따라 권징을 시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곧 구원을 향한 사랑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2) 권징의 必要性

권징사역의 시행 여부는 敎會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권징을 말씀 선포와 성례와 함께 敎會의 3대표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을 교회의 표지로 들고 있으며 권징을 따로 구분하여 표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²⁸⁾ 16세기 종교개혁의 時代에 루터도 칼빈과 같은 見解를 가졌으나 부찌는 그 셋을 구분하여 교회의 표지로 생각했다.²⁹⁾ 물론 칼빈이 교회의 표지속에 권징을 따로 넣지 않은 것은 권징이 중요하지 않

²⁷⁾ 한철하, 권징사역의 중요성, Op. cit.

²⁸⁾ J. Calvin, Inst. 초판. 헌사 6.

²⁹⁾ 신복윤, 성경과 신학, 제1권. 『칼빈의 교회관』 서울: 엠마오, 1985, p.152참조.

다거나 그것이 임의선택조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도리어 칼빈은 권징을 더욱 중요히 여겨 말씀 선포에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 여겼다. 말씀전과 사역과 함께 권징사역이 없으면 敎會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 敎會가 권징사역을 시행하지 않고도 말씀전과만에 의해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³⁰⁾ 권징사역의 수단 없이도 敎會가 오래 존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우리에게 必要하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보조수단이 없이는 우리가 무사히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³¹⁾

하나님의 몸된 敎會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밀착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敎會안에서는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行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지체들인 성도의 모든 삶이 몸인 敎會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전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권징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³²⁾ 이는 권징사역의 絶對 必要性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3) 권징의 目的

³⁰ O. Weber. 칼빈의 敎會觀, p.377.

³¹ J. Calvin. Inst. IV. 12, 4.

³²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Theology, 성경.교회, 이증수역, 서울:성서유니온, 1987. p.116.

권징사역의 目的을 이야기할 때 어느것 딱 하나만 꼬집어 답변할 성질은 아니다. 이는 그 목적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권징사역의 目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범죄한 교인을 벌주며 창피를 주는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 理由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완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³⁾

만일 敎會안에서 잘못하는 敎人들을 무한히 수용한다면 결국은 교회가 그 罪惡들에 대해 둔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리고 연약한 信者들은 진리와 윤리³⁴⁾의 성경적 기준에 대해 커다란 혼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칼빈은 징계의 목적을 세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³⁵⁾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生活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사역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Z. Ursinus는 권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혼돈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本質에 더러움이 끼치게 된다고 했다.³⁶⁾ 敎會는 마땅히 사탄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³³ J. Calvin. Instruction in Faith. 이형기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6. VII.

³⁴ 진리와 윤리란 교리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을 의미한다.

³⁵ J. Calvin, Inst. IV. 12, 5.

³⁶ Z. Ursinus,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83-85. II. (3).

둘째 목적은 악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罪를 두려워 하도록 하는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敎會가 罪惡을 용납하게 되면 교인들은 점차 그것을 예사로 여기는 罪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전체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권징은 시행된다.

셋째는 자신의 비열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형제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矯正이 목적임을 말하는 것이다.³⁷⁾ 그리고 이것은 惡을 행한 者라 할지라도 뉘우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

이 세가지로 분류된 권징의 목적을 간추려 요약하면 하나님의 榮光과 성도의 구원을 교회에서 보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敎會에 주어진 권징사역의 地上 목적은 곧 信者의 구원이라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15의 “네 형제가 罪를 범하거든”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罪를 責하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과의 관련속에서 생각해야만 한다.³⁸⁾ 이렇게 하여 敎會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며 계속 구원의 표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징은 특별히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온 敎人이 사실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³⁹⁾

그러므로 敎會의 권징사역은 어떤 경우에라도 무력적인 目的을 가질 수 없다.⁴⁰⁾ 권징은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³⁷⁾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p.381.

³⁸⁾ 한철하, 권징사역의 중요성, Op.cit.

³⁹⁾ 한철하, Ibid.

⁴⁰⁾ Edmund P. Clowney, The Doctrine of the Church, 성서적 교회론, 이창우역, 서울:성광문화사, 1981. p.57.

의 선언일 뿐 세상적인 무력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인 무력적 方法으로나 人間的인 판단에 의해서는 결코 권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리어 그러한 方法은 권징사역이 目的하는 바를 흐려놓기 때문에 또다른 권징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2. 말씀사역과 권징사역

(1) 秩序와 品位에 대한 명령과 적용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敎會는 무질서한 지상 단체가 아니라 질서 있는 共同體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적절한 범규범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敎會는 무슨 政治的 단체나 社會的 단체가 아니므로 특별한 범규를 가질 必要가 없다고 여길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⁴¹⁾ 모든 國家가 규범이나 법률, 형벌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敎會역시 일반 국가적 권력이나 사법과는 크게 다르다 할지라도 統治와 규범의 어떤 형태가 必要하다.⁴²⁾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40)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敎會의 외적인 조직(ad externam politam)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사정하는 적절한 標準을 제공하고 있다.⁴³⁾ 이 말은 敎會내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⁴¹⁾ 이종성, op. cit. p.142.

⁴²⁾ Z.Ursinus,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translated by G.W.Williamd,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852. 83-85. II.

⁴³⁾ J.Calvin. 신약성경주석, 고린도전서 14:40.

마음대로 主張하고 행동하므로 선한 秩序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교훈은 사람들의 良心이 義務에 묶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의와 화평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원리는 교회조직(Ecclesiae politia)이 봉사해야 할 목적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⁴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히 입법권(Making Law)을 주셨다.

칼빈역시 敎會法의 必要性을 역설한다. 그는 敎會에서 法을 없애 버리면 곧바로 교회의 규율들이 분해되어 완전히 불구가 되어 결국은 흩어지고 만다고 말한다.⁴⁵⁾ 敎會에 法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 法은 信者들을 단순히 속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敎會에 말씀을 근거한 참된 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질서와 品位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 안되는 요소이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구원을 가르치는 敎理를 확립하는 것은 몸이 호흡하며 활동케 하는 지체와 같은 것이다.⁴⁶⁾

한철하 교수는, 敎會가 받은 3대 권능, 즉, 교리적 권능, 권징의 권능, 입법적 권능 가운데 입법적 권능이 제일 하위의 권능이라고 말한다.⁴⁷⁾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敎會가 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法이 敎會를 위해 存在한다는 사실이다. 즉, 法은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기 위해 있다. 이는 法은 敎會의 이 일을 하는데 질서있고 品位있게 하

⁴⁴⁾ J. Calvin, 신약성경주석, 고린도전서 14:40.

⁴⁵⁾ J. Calvin, Inst. IV. 10, 27.

⁴⁶⁾ J. Calvin,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 2장 그리스도교의 기초, 서론.

⁴⁷⁾ 한철하, 권징사역의 중요성, 제 78회 총회, 1993. 9. 20. (인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1993. 10. 5).

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8)

敎會는 말씀 가운데 세워진 法을 올바르게 잘 적용함으로써 질서와 품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敎會의 法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자들도 없잖아 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은 사람의 양심에 불경건한 속박을 가하는 것이라 하여 敎會의 秩序를 形成하는 모든 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敎會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敎會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려 노력하는 자들이다. 49)

우리는 敎會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必要한 法을 통해 유익을 얻고 德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의 뜻에 맞게 敎會의 法을 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가 된다. 그렇게 제정된 法만이 敎會의 秩序와 品位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敎會 안에서 法이 제정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수히 근거한 것이 아니라 人間들의 머리나 그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면, 信者들을 속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敎會의 신령한 秩序와 品位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2) 교회의 순결에 대한 명령과 적용

聖經은 敎會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地上에 재림하실 때에 거룩하신 신랑으로 오실 것이므로, 교회는 마땅히 그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純潔한 모습을 유지해야만 한

⁴⁸ 한철하, 권징사역의 중요성, Ibid.

⁴⁹ J. Calvin. Inst. IV. 3.2.

다. 그 純潔함이란 敎理的 순결과 道德的 순결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끊임없이 지키도록 애써야만 할 본분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敎會의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옳으나 完全을 내세우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⁵⁰⁾

그는 당시의 재세례파 추종자들이, 모든 점에서 천사같은 완전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敎會로 부정하며, 도리어 열심을 구실로 삼아 德을 세우는 것을 보고 敎會를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어거스틴의 다음의 말을 인용해 그와같은 무리들에 대해 지적했다.⁵¹⁾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惡을 미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투쟁을 즐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악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들 편으로 이끌어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순결함을 지켜 나가도록 힘써야만 된다. 우리 信者들은 이미 거룩한 性品을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마음속에 存在하는 罪性으로 인해 날마다 범죄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거리낌없이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거룩해져 가야 한다. 물론 '敎會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완전을 주장

⁵⁰ J. Calvin, Inst. IV. 1, 16.

⁵¹ J. Calvin, Inst. IV. 12, 12.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전진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기록하다.⁵²⁾ 信者가 만일 친절한 책망으로서 惡으로 부터 구해야 할 자들을 침묵이나 불성실로 포기한다면 이는 잔인한 행위일 뿐 아니라 敎會의 기록성을 방관하는 것이다.⁵³⁾ 그것은 仁愛가 아니라 罪惡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敎會가 '기록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상 매우 중요하다.

敎會는 모든 信者들의 어머니라 한다. 敎會가 信者들의 어머니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며, 그들의 모든 生活을 말씀으로 敎育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어 마침내 그들을 철저한 完全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⁵⁴⁾ 여기서 '完全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와 '완전하다'는 말은 서로 다르다. 이 말들은 罪의 有無와 관계 있는데, 칼빈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肉身의 허약성 속에서 罪의 멍에 아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때, 이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이다⁵⁵⁾

각 성도들은 全體敎會의 순결을 위해 자신의 信仰을 항상 점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물

⁵²⁾ J. Calvin, Inst. IV. 1, 17.

⁵³⁾ J. Calvin, 공관복음 주석, 마태복음, 18:15.

⁵⁴⁾ J. Calvin, 신약성경주석, 디모데전서 3:15.

⁵⁵⁾ J. Calvin, 신약성경주석, 요한일서 5:17.

론 바울이 말한바 ‘책망과 바르게 함’(딤후3:16)이란 권징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시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주신 후에 ‘敎會의 들봄’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합당한 信者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3)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쇠의 권능과 시행

敎會의 권징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열쇠에 그 근거를 둔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敎會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天國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16:18-19)

이 귀절은 마태복음 18:18⁵⁶)과 함께 복음전과 사역과 권징사역에 직접 관련이 된다.

칼빈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天國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그 문을 지키는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며 땅위에서 매고 풀면 天國에서도 實際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⁵⁷⁾ 그러므로, 그 권징은 바로 열쇠의 권능에 의한 것으로서 敎

⁵⁶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8).

會에서의 권징사역은 人間的인 理性的 판단에 따른 교정의사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命令과 約束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베드로와 그를 잇는 교황들에게 열쇠와 그 권능이 맡겨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열쇠는 敎會에 맡기신 것이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실질적인 권능이 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게만 있을지라도 그 열쇠는 地上에서 그의 몸된 敎會를 치리하는 직분자들(목사, 장로)에 의하여 관리된다.⁵⁸⁾ 칼빈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만일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셨다면 그 후의 敎會에는 열쇠가 없을 것이며, 반면 敎會에 열쇠가 있다면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은 것은 은 敎會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⁵⁹⁾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 열쇠를 所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敎會라 이름하면서 그 열쇠가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진 敎會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해서도 안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敎會에 준 그 열쇠는 敎會의 직분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물론, 열쇠를 맡은 직분자들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주인,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열쇠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될

⁵⁷ J. Calvin, 신약성경주석, 공관복음. 마태복음 16:19.

⁵⁸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용화역, 서울: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p. 376.

⁵⁹ J. Calvin, Inst. IV. 6.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형식이나 무기력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⁶⁰⁾ 그렇지만 敎會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히 전하지 않거나 또는 권징을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게 되면, 敎會는 그 열쇠와 열쇠의 권능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3. 권징사역에 대한 성화론적 理解

(1) 회개와 권징의 상관성

회개와 권징사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敎會는 범죄한 자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후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준을 세우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正道에서 이탈하고 어둠에서 헤메이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⁶¹⁾ 칼빈은 그의 聖經 주석에서 권징사역중 가장 엄한 처벌인 敎會로 부터의 추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는 목적은 그가 자신의 죄악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敎會앞에서 겸손하게 되며 순수한 뉘우침과 罪惡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청하도록 하는데 있다.

62)

⁶⁰ G. I. Williamson, Op. cit. p. 376.

⁶¹ 이종성, 칼빈, Op. cit. p. 143.

⁶² J. Calvin. 신약성경 주석. 고린도후서 2:7.

이 말씀에서 구성되는 도식은 범죄한 자의 『죄의식-뉘우침-고백-용서』이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이라기 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동시에 죄의 刑罰과 송사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⁶³⁾ 그러므로 회개란 막연한 범죄 사실의 認定이나 잘못의 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참 뉘우치는 마음으로 敎會앞에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부족함을 책망함과 동시에 敎會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한다.⁶⁴⁾ 이러한 회개는 물론 外的인 行動으로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聖經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욥2:13)고 요구하고 있다. 敎會의 교사인 목사는 잘못된 信者에게 더 큰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항상 이 점을 깨우치고 권고해야 한다.⁶⁵⁾ 즉, 敎會 앞에서의 外的인 고백보다 더욱 重要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마음으로 통회하며 뉘우치는 것임을 信者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悔改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⁶⁶⁾

그러므로 敎會는 훈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낙심하게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온유함을 유지해야 하며,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점이 확실하게 되면 당장 그를 용서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⁶⁷⁾ 이 온유함은 惡한 사건을 대충 무마하자거나 信者의 범과를 따지지말

⁶³⁾ J. Calvin, Inst. III. 3, 18.

⁶⁴⁾ J. Calvin, Inst. III. 4, 10.

⁶⁵⁾ J. Calvin, Inst. III. 3, 17.

⁶⁶⁾ J. Calvin, Inst. III. 3, 21.

⁶⁷⁾ J. Calvin. 신약성경주석, 고린도후서 2:6.

고 대충 넘기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罪를 엄하게 다루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권징사역이 추구하는 바가 罪人에게서 罪를 제거하는 것이며, 敎會에서 罪人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⁶⁸⁾ 그러므로 순수하게 罪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단계에까지 온 사람은 징계가 아니라 위로가 必要하며, 그를 계속해서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잔인한 직권남용인 것이다.⁶⁹⁾

우리가 여기서 重要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敎會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다. 우리는 날마다 범 죄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人間들이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罪는 우리로 하여금 罪에 무디게 하므로,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권징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권징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회개의 生活이 성도들을 구원의 끈 안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이다.

(2) 권징사역과 懺悔

개신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부정적으로 理解한다. 이는 카톨릭敎에서 고해성사가 잘못된점을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해성사⁷⁰⁾가 무조건 배격되어야 할 성격의 의식만은 아니다. 여기에서의

⁶⁸ O. Weber, 칼빈의 교회관, p. 382.

⁶⁹ J. Calvin, 신약성경주석, 고린도후서 2:7.

⁷⁰ 원래 告解聖事란 천주교회의 七聖事 가운데 하나를 意味하지만, 여기서는 罪를 告白하는 것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이 用語를 使用한 理由는 그 뜻을 더욱 明白히 하기 위함이다.

고해성사란 懺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도 그런 의미에서의 고해성사를 시행했다. M.Luther도 그러했고 J.Calvin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목사의 직분을 敎會에서 가장 重要한 직책으로 이해했는데⁷¹⁾ 이는 목사가 전체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그로써 권면하는 권징사역의 주된 직분자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義務를 說明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킬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義務를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와 수단까지도 있어야만 목사의 교훈에 힘과 권위가 있다.⁷²⁾

여기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목사의 敎會에서의 말씀선포의 권한 이외에 敎人들의 義務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목사는 일반적인 온화한 말로써 敎人들을 권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敎人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의가 부족할 때 저들에게 참된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이다.

아울러 모든 敎人들은 목사의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認識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목사와 신뢰할만한 人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신실한 敎人들은 서로 자기의 罪를 告하며 懺悔할 수 있어야 한다.

⁷¹⁾ O. Weber, 칼빈의 교회론. p. 71.

⁷²⁾ J. Calvin, Inst, IV, 12, 2.

야고보는 “너희 罪를 서로 告하라”(약5:16)고 요구한다. 이것은 범죄한 者가 자신의 罪를 다른 성도에게 고백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성도상호간의 個別的인 自白의 意味가 있으며, 여기서 ‘서로 告하라’의 ‘서로’는 그 罪를 告할수 있는 대상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수 있는 者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⁷³⁾

그런데 칼빈은, 지은 罪를 自白하며 懺悔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으로서 목사를 들고 있다.

罪를 범한 사람은 그 罪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敎會의 목사에게 私的으로 고백하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목사의 私的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公的으로나 私的으로나 福音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百姓을 위로하는 것을 직무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는 그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된다⁷⁴⁾

물론 이때 罪의 自白을 받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세를 지녀야만 한다. 그것이 私的인 告白이기에 더욱 그렇다. 목사는 어떤 성도로 부터 罪의 告白을 받으면서 聖經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결코 안된다. 그에서 지나치는 것은 부패의 기초가 될 따름이다.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에서 시행하는 고해성사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점 때문이다.

목사가 罪의 告白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목사에게 罪를 직접 용서할

⁷³ J. A. Bengel, New Testament Commentary, 야고보서 5:16.

⁷⁴ J. Calvin, Inst, III, 4, 12.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罪의 용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범죄한 人間의 罪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告解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서로간 세움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개신교회에서는 完全히 사라져버린 告解聖事의 문제가 信仰的 올바른 성숙과 함께 다시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副作用 역시 우려할만하므로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권징사역과 罪의 自白 및 懺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善行을 이끄는 단계로서의 권징사역

기독교에 있어서 선행은 매우 重要하다. 기독교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취득하는 종교가 아니라 以信得儀의 종교라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자칫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물론 聖經이 가르치는 교훈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올바른 참된 信者에게는 마땅히 善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人間的인 의도나 결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참된 성도들에게 自然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이다. 즉, 새로운 生命을 소유한 信者는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새로운 순종은 선행을 통해서 실현된다.⁷⁵⁾ 물론 그 선행 역시 인

⁷⁵⁾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revised and edited by Ernst Bitger, and translated by G.T.Thoms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ion Ltd., n.d.

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교회에서의 권징사역은 信者들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선행을 독려하게 한다. 성도들은 敎會를 통해 서로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로서 그의 성품에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힘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권징사역은 신자들의 선행을 이끄는 전 단계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生命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해 선행의 경주를 하기 원하시며 그 경주를 통해서 그들을 所有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선행의 열매에 따라 면류관을 얻을 준비를 한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한 말씀은 바로 그 의미이다.⁷⁶⁾ 그렇다고 인간의 善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77) 오히려, 行爲의 결과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善行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인한 行爲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산물로서의 善行이다. 人間의 자기 노력으로 말미암은 善行은 사람을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겉보기에 겸비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자각하는 상태에서의 善行은 결

p. 576.

Z. Ursinus,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p. 476.

⁷⁶⁾ J. Calvin, Inst. III. 3, 2.

⁷⁷⁾ J. Calvin, Inst. III. 18, 2.

코 그렇지 않다.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결실이 비록 善行으로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것은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더 善하지 못한 자기 반성으로 인해 사람을 여전히 겸손에 묶어두게 되는 것이다.

敎會는 끊임없는 권징사역을 통해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져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참된 성도로 되어야만 한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善行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標요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4) 권징사역의 최종 목표로서의 聖化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信者의 최종 단계는 聖化라 할 수 있다. (롬 8:30참조)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信者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청난 사업을 권징사역을 통해서 하도록 교회에 당부 하셨다.⁷⁸⁾ 信者는 일생동안 권징사역과 회개의 실천을 통해 惡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자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重生하여 새로운 生命을 소유하게 된 信者는 주님의 나라가 完成될 때까지 계속해서 聖化되어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百姓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동시에 자신의 성령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을 진정한 義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다.⁷⁹⁾

물론 이 聖化가 完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人間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⁷⁸⁾ 한철하, 권징사역의 중요성, Op. cit.

⁷⁹⁾ J. Calvin, Inst. III. 3, 19.

한 不完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聖化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不完全함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不完全한 자취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겸손해야할 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한다.⁸⁰⁾

各 참된 信者는 자기자신의 不完全한 모습을 認識하여 그것을 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성도들의 不完全한 모습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命命하신 사랑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춰내자거나 꼬집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피차 사랑의 권면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敎會에 편지하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容恕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容恕하심과 같이 하라”고 부탁하고 있다.(엡4:32) 여기에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등의 문귀는 실수 혹은 罪的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바울은 그러한 問題를 서로서로 도와가며 해결하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恩惠에 항상 감격해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순결한 것으로서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즉, 엄격히 따지면 그 부족함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므로 선하게 보시고 의로운 것으로 용납하시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후히 償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 속한 敎會는 이 믿음 위에서 榮華를 소망하며 成長해 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해야할 敎會는 전체 공동체가 권징사역을 상호간 지속함으로써 聖化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敎會를 구성하고

⁸⁰⁾ J. Calvin, Inst. III. 14, 9.

있는 성도는 自己의 罪되고 不完全한 모습을 진정으로 認識함으로써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生活을 해야하고, 그런중에 이웃의 영적상태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역을 행함으로써 敎會의 聖化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온 敎會 성도들은 서로 서로간에 긴밀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권면들을 주고 받아야 한다. 聖化의 높은 분량에 이른 敎會와 성도일수록 그 권징사역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敎會의 권징사역에 대한 실천자세이며, 그로 말미암는 聖化는 그 사역의 최종목표가 되는 것이다.

IV. 장로교 憲法 속의 권징조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신)를 중심으로』

1. 권징에 대한 해석상의 問題

권징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問題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징을 이해할 때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 징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

어떤 敎人이 범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곧 권징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권징은 항상 어떤 범죄의 뒤에 따라오는 제도적 대응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의 권징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事件을 중심으로한 단회적이며 단편적 사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권징사역은 특정 범죄적 사건을 中心으로 하는 재판적 사건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모든 敎人들을 통해 상호간에 끊임없이 시행되는 거룩한 사역으로 해석되어야만 된다.

현대 교회에서는 권징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권징은 곧 罪와 결부되고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징사역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다.⁸¹⁾ 즉, 권징사역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說明한다.

⁸¹⁾ J. Calvin, Inst. IV. 12, 1.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敎會의 生命인 것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을 통해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각각 자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⁸²⁾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시 끊임없이 지속되는 말씀 사역과 권징사역을 통해 敎會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敎회는 말씀에 따라 계속적인 권징사역을 실행해 나감으로써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전체 敎會에 有益을 도모해 가게 되는 것이다.

2. 장로교 헌법의 실제

한국의 장로교 헌법은 각 교단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정 發行된(1992. 11. 28.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초판 발행)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고신) 헌법』에 규정한 권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헌법은 제 1부 『교리 표준』과 제 2부 『관리 표준』, 그리고 부록으로서 『헌법적 규칙』과 『십이신조』로 분류하여 그 內容을 수록하고 있다.

헌법의 서문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과 예배와 敎會 정치가 집대성된 17세기의 웨스트민스트 표준서들을 바탕으로한 장로교 헌법임을 명시하고 있다.⁸³⁾ 이는 칼빈의 神學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⁸²⁾ J. Calvin, Inst. IV. 12, 1.

⁸³⁾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 1993. p. 5.

헌법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 1부 『교리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담고 있어서 장로교의 전통적 敎訓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 신앙고백의 제 30장은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제 1절, 주 예수는 자기 敎會의 왕과 머리이심으로 국가 공직자와 區別되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정해 주셨다.

제 2절, 이 직원에게 天國의 열쇠가 맡겨져 있는데, 그 주어진 힘으로 직원들은 각각 죄를 정하기도 하고, 사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福音의 사역과 권징의 해제에 의해서 天國을 열어 줄 權限을 가지고 있다.

제 3절, 敎會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福音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인장을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 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제 4절, 이 목적을 더 效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敎會의 직원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따라서, 권계, 주의성찬 참여의 일시적 정지, 그리고 교회로 부터의 출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즉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정치하게 하셨음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가시적인 政治體系와 권능(Power)을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이다.⁸⁴⁾ 이 헌법에 수록된 대요리문답 <제 45문>에서는 그리스도가 그의 王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百姓들에게 직분과 법과 권징을 주셔서 가견적으로 통치하신다고 답하고 있다.⁸⁵⁾

제 2절에서는 교회 직원들에게 天國의 열쇠를 맡기심으로 말씀사역과 권징 사역을 통해 권능을 행사하도록 하셨음을 언급하고 있다. 교회에 속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되게 직원의 치리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직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신자의 罪를 용서하기도 하고 벌할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 물론 그 권능의 效果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제 3절은 권징사역의 必要性을 말한다. 범죄한 형제의 구원과 교회의 성결 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권징 사역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권징을 교회의 수호를 위해 마땅히 存在하는 사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 4절은 권징사역의 方法에 대해 說明하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 그 과오의 성격과 잘못을 범한 신자의 자세에 따라 차등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2부 『관리표준』은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⁸⁴⁾ J. Calvin, Inst. IV. 3, 1.

⁸⁵⁾ 헌법책 P. 98.

『교회정치』 제 47조에서는 장로의 직무를 여덟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47조 장로의 職務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行政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敎訓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說敎대로 信仰生活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必要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위의 제 1항에서는 권징이란 用語를 독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좁은 意味에서의 권징⁸⁶⁾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 위에 있는 여덟 항목 전체가 권징사역에 해당된다. 敎人들을 심방하여 그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信仰生活을 잘하고 있는지 영적인 형편을 살피 권면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며 그 형편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은 그 전체가 권징사역에 속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목사들이나 장로들은 특히 敎人들의 삶을 살피야 하며, 그들

⁸⁶⁾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내의 범죄자를 징계하는 일.

의 義務는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敎訓으로써 되지 않을 때 각 가정을 방문하여 경고와 충고를 하는 것이다.⁸⁷⁾

목사나 장로들이 교인의 家庭을 심방하는 것은 그 가정을 단순히 祝福하기 위해서뿐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 진정한 復을 간구하는 기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더욱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리어 그 가정과 가족들의 삶을 잘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서의 권징사역이다.

이렇듯이 교회의 권징사역의 주축은 목사와 장로들의 직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2부 『관리 표준』 가운데 둘째 부분에서는 『권징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 제 1장 『총론』중 <제 1조>와 <제 2조>에서 권징의 意義와 目的을 설명하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제 1부 『교리 표준』의 『신앙고백』 <제 30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징의 의미와 그 궤를 같이한다.

제 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敎會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設立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敎人, 職員 및 각급 치리회를 치리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 2조 권징의 目的

⁸⁷ J. Calvin, Inst, IV. 12, 2.

권징의 목적은 眞理를 保護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德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런데 역시 『권징조례』 제 1장 『총론』의 <제 4조> 『권징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 4조 권징의 範圍

권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聖經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犯罪하게 한 일.
3. 聖經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敎理, 法規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德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여기서 『권징의 범위』를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보면 그 권징의 범위가 사건적이며 적극적인 종교적 범죄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⁸⁸⁾ 그러나 기독교회의 권징사역은 적극적인 범죄 사건들을 포함하지만 그 범죄 사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敎會生活에 신실하지 아니하거나 나태한것,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하여 聖經이 교훈하는바 사랑을 表現하지 않는 것등 소극적인 罪도 역시 罪이며 권

⁸⁸⁾ 본 조항의 『권징의 범위』에 나타나는 罪들은 한결같이 적극적인 종교적 범죄사건을 다루고 있다. 즉, 여기서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罪惡이나 不作爲의 犯罪行爲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

징사역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敎會의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구실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方法을 사용하거나 國家法을 어기고 편법을 쓰는 것은 엄히 책망받아야 할 罪惡이다.⁸⁹⁾ 탈세를 하거나 職場에 있어서의 公務上 不義함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죄악이므로 권징사역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 2조> 권징의 목적에서 나타나는바 『악행』이라는 용어와 『범죄자』라는 용어를 敎會 안에서 사건화된 『악행』이나 『범죄자』로만 理解해서는 안된다.

제 1부 『교회 표준』의 제 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에 나타나는 『죄』, 『과오』, 『범죄자』 등의 용어의 性格은 일반적인 기독교적 意味와 사건적 의미를 포함한다.⁹⁰⁾ 따라서 우리가 권징사역을 논할 때는 단순히 사건적 범죄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의미의 모든 범죄를 포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징조례』의 각론은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제 2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 3장 재판에 관한 일반규례

제 4장 직원에 관한 재판규례

제 5장 즉결처리의 규례

제 6장 증거조사규례

⁸⁹⁾ 물론, 敎會法과 國家法 사이에는 해결해야만 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편윤리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⁹⁰⁾ 죄, 범죄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모든것을 표현하며 사건적 의미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나 범죄를 뜻한다.

제 7장 하회가 처리하는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 8장 이의와 항의

제 9장 재판부에 관한 규례

제 10장 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하는 규례

제 11장 시벌

제 12장 해벌

이 『권징조례』의 각론을 통해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권징이 一般的 범죄 사건에 대한 해결 조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사건적 범죄와 재판에 관한 규례들 뿐이다.

제 2부 『관리 표준』의 셋째 부분인 『예배 지침』의 <제 10장>에서도 『범죄』를 사건적 犯罪에 국한시켜 규정하고 있다.⁹¹⁾

그리고 본헌법의 『헌법적 규칙』 제 9장 『권징조례』 부분에서는 제 1조 『권징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범죄를 폭언, 성희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은 유인물, 기물파괴, 예배방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명시된 犯罪의 내용은 모두 사건적 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基督教에서 말하는 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범죄를 포함하는 內容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별다른 이유 없이 공예배에 등한시하는 問題라든지 이웃을 멸시하여 자만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 선포의 의미를 경솔히 여기는 것, 성례의 존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등은 모두 권징의 대상인 범죄에 속해야 하는 것이다.

⁹¹⁾ 헌법책 p. 254참조.

실상 基督教에서 말하는 罪란 어떤 사건적인 범죄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人間의 교만의 죄악이다. 그런 意味에서 教會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항상 권징사역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관리표준』의 첫째부분인 『교회정치』편, 제 1장 『교회정치 원리』 제 8조 『권징』에서는 『권징조례』편에서 정한 규례들과는 대조적이다.

제 8조 권징

教會가 위 각조의 원리를 힘써 준수하면 教會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世界教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能力과 權威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性格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위 『각조의 원리』라 함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직원』 『진리와 행위』 『직원의 자격』 『직원의 선거권』 『치리권』의 7개 조항의 기본정치 원리를 뜻한다.

그리고, 특히 권징의 性格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함을 선언한 내용에서, 권징이 사건적 범죄와 그 재판적 규례를 넘어선 넓은 意味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3. 이명규례에 관한 問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敎會들은 우주적인 敎會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들은 상호간 배타성을 띤 개교회주의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기적 형태일 수 밖에 없다. 지교회와 지교회 사이에는 항상 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이란 어떤 연합사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敎會를 잘 보존하기 위한 협력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명제도이다. 그것은 권징사역의 연속적 실행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憲法에는 이명에 관한 규례들이 정해져 있다. 信者가 어느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다른 지교회로 옮겨갈 때는 필히 이명규례를 따라야 한다.

이명의 목적은 어느 성도의 원래 소속되었던 교회가 他敎會에 그 해당성도에 대한 信仰的 保證을 해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세례받은 入敎人이 이명서 없이는 아무렇게나 敎會를 옮겨다닐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명서 없이 원래의 소속 敎會를 떠나는 것은 그 敎會의 信仰的 보증이 없다는 뜻이 된다.

憲法의 『관리표준』의 『교회정치』 제 3장 『교인』편에서는 敎人의 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3조 교인의 이명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당

회에 이명청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규칙』 제 2장 『교인』편에서도 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4조

敎人은 다른 敎會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소속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소속교회 치리하에 있다.

이 조항들은 강제규정에 속한다. 교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갈 때나 혹은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敎會를 옮겨야 할 경우 원래 소속된 교회의 당회에 이명을 청원하기로 되어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方法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法規定이다.

敎人의 이명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는 牧師와 長老로 구성된 치리회로서 그 성도의 信仰상태와 삶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청원에 동의하여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敎人이 이 규정을 어기거나 무시하면 敎人의 자격이 정지, 박탈된다.

『교회정치』 제 3장의 25조에서 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25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이거하고 장기간 경과하면 교인으로서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헌법적 규칙』에서도 이와같이 규정했다.

제 6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이명서 없이 이거한지 6개월이 지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지나면 실종교인이 된다.

이 조항들에서 나타나는 법원리는 敎人이 『이명증』없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교인이 이명증 청원 없이 해당 교회에 불출석하면 교인으로서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인으로서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의미는 원리적으로 볼 때 『자동출교』라는 말과 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즉, 敎人으로서의 資格이 박탈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올바른 信仰生活을 하던 성도가 다른 敎會로 옮겨 가면서 이명서를 갖지 않고 가야만할 절박한 이유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은 거룩한 교회이므로, 한 교회를 처리하는 당회가 어느 성도를 보증한다면 재차 어떤 신앙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다른 지교회가 그 성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이명절차는 원래 의도하는 바에 따라 지교회와 지교회들 사이에서 원만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敎會들 상호간에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권징사역의 지속적 이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회는 이명해 가는 성도에 대한 신실한 견해를 상대교회 당회에 알려줄 교회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憲法은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명서 없이 敎會를 옮겼을 경우에

대해 法則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적 규칙』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 8조 교인권 부여

다른교회 敎人이 이명서 없이 본교회에 出席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겼을 때 그 새로운 敎人을 수용하게 될 교회의 처신에 대해 말한다. 원래 그 교회의 당회는 그 새로운 교인에게 이명서를 받아올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이는 敎會가 새로 가입하는 성도의 信仰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교인이 원래 소속되었던 敎會의 당회가 어떤 理由로 인해 이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할때 그 본교회의 당회는 6개월이 경과하여 결의로 그 敎人에게 교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막연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않는다. 당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는 公的인 立場에서 그 새로운 信者를 6개월의 기간동안 잘 살펴보아 信仰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전체 敎會와 個信者들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아무런 구체적 확인없이 6개월이 지났다고해서 정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당회의 責任感 있고 말씀에 따른 신실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권장조례』 제 5장 『즉결처리의 규례』에서도 이와 관련된 問題가 언급된다.

제 34조 1항

犯罪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敎會를 設立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 세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이 조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명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타교단 교회로 옮기는 것은 犯罪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⁹²⁾ 그래서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는데 그것은 『제명』으로 출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이명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대한 이유중 하나는 권징사역의 연결성 문제 때문이다. 信者의 보증은 권징사역의 주된 기관인 敎會의 당회가 해야하며 그 보증은 항상 信者의 敎會공동체에게 선하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敎會에는 이명절차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장로교의 憲法이 분명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은 死文化된듯 하다. 물론 목회자나 장로등 중요 직분자에 대한 이명은 지금도 법절차에 따라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제도는 전교인들에게 다 適用되어야만 한다.

敎人들의 數가 늘어나는데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 새로오는 信者에 대한, 그 이전 소속 敎會로 부터 연결되는 온유한 권징사역의 진행이

⁹²⁾ 여기에서 타교단 敎會라 함은 信仰告白을 달리하는 교단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우리 韓國敎會의 경우에 있어서는, 信仰告白을 같이 하지만 교단이 달리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 제 34조 1항에 명시된 『다른교단』이란 意味는 원리적으로 보아 信仰告白을 달리하는 교단을 지칭하지만, 法律項 속에서는 自교단 以外의 다른 모든 교단을 가리킨다.

없다면 우리 韓國敎會는 全體的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 장로교 憲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명에 관한 조항처럼 그 法精神을 잘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성숙한 敎會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V. 敎會의 권징사역 갱신의 必要性과 그 방안

1. 권징사역의 재확립의 必要性

한국 敎회는 일반적으로 권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敎人들은 권징사역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벌주어 징계하는 것으로 理解하며 敎회의 헌법 가운데도 권징조례는 거의 재판규례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권징은 무언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징은 犯罪하는 교인을 징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성 있는 징계를 위해서는 권징조례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問題될 것이 없다.

그러나 권징사역의 폭넓은 이해와 의미가 잘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重要한 부분을 놓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信者들의 일상생활에서 부터 시작하여 전 삶을 포괄하는 전체적 영역을 권징사역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구체적 犯罪를 저지른 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늘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敎人이 敎會에 출석하고 구체적 罪를 범하지 않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善을 행치않는 것이 사실은 罪를 범하는 것이다.⁹³⁾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열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

⁹³⁾ 한철하, 권징사역의 중요성, Op. cit.

녀인 증거를 보여야만 한다.

우리 韓國敎會는 전반적으로 권징사역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必要하다. 요즘들어 많은 사람들이 敎會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본다. 敎會가 敎會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敎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敎會가 세상으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뜻있는 敎회의 지도자들은 敎회가 거듭나야 되며 세상을 선하게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敎會가 주님의 뜻에 합한 참거룩한 敎會가 되기 위한 유일한 方法은 순수한 말씀선포와 함께 권징사역을 올바르게 깨달아 확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권징사역은 날마다 모든 敎人들 상호간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敎會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권징사역이 이루어짐으로써 敎會가 점점더 거룩하고 성숙한 단계로 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敎會가 전체적으로 회복해야할 問題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 처럼 이명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다. 이는 全體 敎會들의 협력없이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敎會들이 個敎會主義에서 벗어나 이 땅에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敎會가 잘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꼭 私心없는 전체적 이명체도를 잘 정착시켜야만 할 것이다.

2. 권징사역의 실질적 有益에 대한 理解

권징사역은 敎會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이 권징사역의 원래 목적은 연약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망이 따라야 하며 그 결과로서 성도로서의 참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⁹⁴⁾ 만일 권징이 없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숨김으로 인해 일시적 평안함⁹⁵⁾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자칫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깨어있어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을 무디게 하고 둔감하게 만들게 된다.

이는 각 개인 信者들에게 뿐만 아니라 敎會的으로도 마찬가지다. 권징사역이나 징계가 없으면 우선은 사랑이 많은것 같고 문제가 없는것 같이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敎회는 진정한 사랑은 없고 편의주의적인 사랑만 存在할 따름이며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가리워져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권징사역의 실질적인 유익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원리와 적용에 대한 잘못 때문일 것이다. 올바른 권징사역의 결과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든든하게 서도록 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安全케 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선행의 결실들이 가득히 나타남으로써 풍성한 敎會를 이루게 된다. 순수한 말씀선포와 더불어 끊임없이 시행되는 권징사역을 통해 생겨나는 유익들은 人間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이며 보장성 없는 유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⁹⁴⁾ J. Calvin, 신약성경주석, 디모데후서 3:16.

⁹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안도감을 의미한다.

즉, 참된 권징사역은 敎會와 그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친다.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信者는 낙망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 결국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罪에 대해 노하시지만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다고 깨닫는 사람이다.⁹⁶⁾

그러므로 이러한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有益을 늘고려해야만 한다. 잘못된 죄악이 제거되어야 할 때 증오심이 아니라 후에 따라올 양심의 평안과 함께 敎會를 평안의 줄로 묶어주는 그 유익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敎會에 권징이 있으므로 어떤 불편함이나 잘못된 긴장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것은 그 실제적인 유익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오히려 敎會에 지속적인 권징사역들이 성도들간에 행해지고, 어떤 罪惡된 사건이 信者들 가운데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말씀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지는 각 개인과 敎會의 유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⁹⁶ J. Calvin, Inst. III. 4, 34.

3.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성숙한 교회의 자세

教會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다(행20:28). 그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의 信仰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⁹⁷⁾

따라서 참된 教會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고 자라 가야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그 知識을 우리의 안내자요 敎師로 삼고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구하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그의 은혜로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⁹⁸⁾ 권징사역의 시행도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教會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저들의 統治勸과 政治力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다.⁹⁹⁾

教會는 목사와 장로등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단체가 아니다. 물론 教會의 성도들은 牧師의 참된 말씀선포와 長老들의 올바른 지도력에 의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은 敎人들에게 무조건 조용히 따라올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칼빈은 “敎會안에서의 침묵은 진리에 대한 억제를 뜻한다”고 강조한다.¹⁰⁰⁾ 모든 것에 대해 무조건 침묵하는 것은 德이 아니라 罪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⁹⁷⁾ J. Calvin, Inst, IV. 2, 7.

⁹⁸⁾ J. Calvin, Inst, I. 2, 2.

⁹⁹⁾ Z. Ursinus, The Comme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83-85 (IV).

¹⁰⁰⁾ J. Calvin, 신약성경주석, 디모데전서 3:15.

敎會안에서 비성경적인 어떤 견해나 행동이 발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된 집단적인 결정이 있을 때 성도들은 성경적 견해와 더불어 그 문제점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심판적인 意味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면이어야 한다.

참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罪를 생생하게 認識할 때 생겨나는 부끄러움과 당황함과 번민과 자기혐오와 그밖의 다른 感情들이 어떠한 형벌인지 체험한다. 101)

우리의 敎會는 지속적인 권징사역을 통해 이 정도의 信仰人格에까지 자라야 한다. 사사로운 자기 유익이나 감정적 문제로 엉뚱하게 마음 상해하는 어린 敎會가 아니라 항상 자기의 罪된 부분을 認識하여 다른 이웃들의 사랑의 권면을 수용할 준비태세를 갖춘 성숙한 성도들의 敎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6:2)는 사도바울의 말을 우리의 연약함과 不德함을 서로간 온화하고 우정에 찬 교정을 통해서 그 짐의 억압에서 풀어내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102) 이렇듯이 성숙한 敎會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자 명령이기도 하다. 內的이며 實質的인 成長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그럴듯한 敎會로서 外的 成長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숙한 교회라 할 수 없다.

¹⁰¹ J. Calvin, Inst, I, 2, 2.

¹⁰² J. Calvin, 신약성경주석, 갈라디아서 6:2.

4. 教會와 권징사역의 갱신방안

(1) 권징사역에 대한 폭넓은 수용

권징에 대한 전체교회의 올바른 認識과 더불어 教會 憲法에 명시된 권징조례에는 권징사역에 관한 폭넓은 내용의 수용이 요구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징벌과 재판규례만 주로 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원래의 권징사역이 의미하는 바 그 정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教會는 권징사역에 대한 聖經的인 참된 意味를 재발견하여 教會에 적용해야 한다. 목사나 장로등 教會의 지도자들은 권징사역의 참의미에 대해 敎人들에게 說明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憲法에는 그 精神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구체적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권징사역의 대상이 어떤 外的인 범죄적 사건중 심적으로만 기술될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소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罪惡도 충분히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教會의 公禮拜의 존귀함을 소홀히 여기는 者나 교만하여 구원의 標인 善行의 열매가 없는 者는 권징이 대상이 됨을 憲法에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聖經의 구체적 교훈(딤후3:1-13등)을 떠나 목회자 개인의 外的인 목적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¹⁰³⁾이나 信仰告白을 충분히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례를 주는 行爲¹⁰⁴⁾등은 가장 重大한 범죄행위

¹⁰³ 政治的 목적이나 敎會堂 건축을 하기 위해 장로를 세운다든지 인간적인 배려로 인해 직분자를 세우는 행위등.

¹⁰⁴ 구체적인 信仰의 告白과 성경적 확인이 없이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한꺼번에 수천명씩 세례를 주는 行爲등은 聖經의

임이 法條項에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 밖에도 새롭게 정리해야 할 內容들은 엄청나게 많을 줄 안다.

그리하여 教會內에서는 어떤 범죄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로 징계하는 단계나 절차로서의 권징사역에 집착하는 것 뿐 아니라, 범죄적 사건이 일어나기 前에 教會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상호간에 끊임없이 권징사역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권징사역의 方法과 시행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 조항들이 憲法에 포함될 때 그 사역이 한결 원만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韓國教會의 올바른 成長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2) 이명에 대한 법적용 문제

憲法에 명시된 『이명조항』을 死文化시켜서는 안된다. 오늘날의 대다수 일반 敎人들은 憲法에, 이명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 장로들은 이명의 실질적인 重要性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체 教會는 이 事實을 새롭게 잘 認識하고 서로간 잘 깨우쳐주어야 한다.

물론 『이명』에 관한 문제는 각 개교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韓國教會의 폭넓은 合意가 있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신실한 合意와 함께, 이미 存在하는 法規定과 法精神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교훈에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특히 軍隊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예는 명백히 검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종교적 행위의 동기가 좋아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論者의 見解로는 『이명』에 대한 憲法的 법률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목사나 당회에 대해서는 上會인 老會 차원에서의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敎會를 이동하는 각 敎人에 대해서도 이명 절차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명증서를 발급하는 교회나 그 새로운 성도를 맞이하는 敎會는 서로간 이명해가는 성도와 쌍방 敎會에 대해 이명절차를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시행에 따른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法的 확인이 뒤따르지 않은 법률조항은 無意味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聖經의 교훈에 조화되는 훌륭한 법조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 法을 착실히 준수해야만 한다.

그 어떤 法보다도 『이명』조항과 그 시행이 重要함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권징사역의 지속적 시행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장로회 『권징조례』 개정안

現行 장로회 憲法의 『권징조례』는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권징사역의 진정한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함이다.

우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 1장 『총론』의 제 4조 『권징의 범위』를 의미상 좀 더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

지금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¹⁰⁵⁾ 그 범위를 사건적이며 적극적인 종교

적 범죄행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제 1항 『성경말씀에 위배된 敎人の 모든 生活』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 다음의 네가지 항목은 그냥 두면 된다.

그리고 『권징조례』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제 1장 『총론』에 이어 나머지 열한장은 각론에 해당한다.¹⁰⁶⁾ 여기의 각론들은 모두 재판을 비롯한 범죄사건 해결조례들이다. 여기에서 풍기는 인상은, 권징은 곧 종교적 범죄이며, 『권징조례』는 그 법률적 해결방안이라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권징과 『권징조례』가 그에 국한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제 1장 『총론』에 이어 <제 2장>에 마태복음 16:18-19에서 敎會에 맡긴 열쇠의 권능과 마태복음 18:15-18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밝혀 수록함이 적절하다.

本 論文 III.1.(1)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권징사역의 앞 단계가 범조항 가운데 규정되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권징조례』 제 1 장 『총론』과 다음에 따라오는 제 2 장 『소송에 관한 규례』 사이에 새로운 <장>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그 개정안을 제시해 본다.

¹⁰⁵ 헌법책, p.217, 본 論文 p.53 참조.

¹⁰⁶ 헌법책, p.217-235, 본 論文 p.54 참조.

제 2 장 권징사역의 원칙

제 1 조 일상생활 속의 권징사역

모든 교인들은 다른 형제들이 비성경적인 사고를 하거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사랑으로써 권고해야 한다. 만일 저가 성경말씀의 교훈에 올바르게 근거한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좇아 권면하도록 애쓴다.

제 2 조 교회가 처리해야 할 사건

교인의 어떤 문제가 교인들 상호간의 성경적인 사랑의 권면 들로써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는 교회에 공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교회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한다.

그 이하의 각론에 해당하는 각 장들은 한장씩 뒤로 물려 전체가 13장이 되도록 구성하면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의 『헌법적 규칙』 제 9 장 『권징조례』 부분도 수정 보완 함이 타당하다. 현행 『헌법적 규칙』 제 9 장 『권징조례』 제 1 조 『권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1 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학습 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희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괴, 예배방해등 포함)와 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이 범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제 1 조 권징사역과 징계의 성격

권징사역은 교회의 성도들이 상호간의 부족함에 대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고하는 것이며, 징계는 참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례교인과 직원의 비성경적인 사고나 생활 혹은 저들의 범죄(폭언, 성희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괴, 예배 방해등 포함)를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이 개정안은 장로교 憲法의 권징조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구체적인 조항 손질을 함으로써 聖經이 교훈하는 바 권징사역의 意味를 충분히 살리는 憲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이다. 이 외에도 수정보완해야할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겠으나 큰 골격으로서 이 정도의 개정안을 提案한다.

(4)職分者의 갱신운동

권징사역을 통한 敎會의 올바른 成長을 위해서는 敎會지도자들의 자기갱신운동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다. 이것은 막연히 '잘해보자'는 어떤 외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는 聖經말씀의 잣대를 통한 자기점검과 그에 따른 진정한 회개운동을 意味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갱신운동이란 단순한 윤리적 반성이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職分者의 진정한 갱신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出發해야 한다.

聖經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異性이나 단순한 經驗을 중심으로한 목회활동이나 장로사역은 마땅히 重要的 회개의 대상이다. 教會成長에 대해서나 부흥운동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도 내면적인 聖經의 증거나 요구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個人的인 욕심의 表現일 위험이 있다. 권징사역의 신실한 시행이 없거나 이명절차나 信仰의 확인이 없이 敎人들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여 수적으로 큰 教會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分明히 잘못이다.

따라서 教會의 職分者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처럼 우선 聖經으로 돌아가야만 한다(Back to the Word!). 그리고 그 聖經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여 순수한 말씀선포와 온전한 권징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教會를 統一性 있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職分者의 참된 회개를 통한 갱신운동이 없이는 우리 韓國教會의 올바른 成長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聖經말씀에 의한 진정한 회개운동이 말씀사역과 권징사역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VI. 結論 및 제언

1. 結論

地上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敎會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存在이므로 스스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人間들과 다를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敎회를 세워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恩惠이다.

오늘날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敎회가 있다. 그러나 그 敎회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선포와 권징사역이 있어야만 한다. 만일 그 기본 요소들이 없으면 결코 올바른 敎會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敎會라는 이름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¹⁰⁷⁾

敎會는 人間들의 주관적인 信仰의 경험에 의해 조직된 결정체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人間의 理性이나 경험으로서 敎會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된다. 도리어 敎회의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순종해 갈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敎회는 끊임없이 진정한 의미의 권징사역을 행함으로써 人本主義的인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論者が 본 論文을 통해 밝힌 권징사역의 진정한 意味란 성도들 상호

¹⁰⁷ J. Calvin, Inst, IV. I, 11.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주의 몸된 教會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범죄한 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권징사역의 일차적 목적은 아니다. 물론 教會內에서 惡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영적 권위로써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를 징계하기 以前의 성도간에 서로 권면하며 교정해주는 개별적인 사역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권징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것이며 그 권징사역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教會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권징이 시행됨으로써 敎人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곧 教會에 害가 된다는 것이다. 108)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의지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구실로 하나님께 罪를 지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웃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의 模範을 보여야 됴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이웃에게 젓을 먹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웃을 그들의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見解 속에 빠지게 한다. 109)

우리의 세대가 바로 그리할전대 우리는 하나님의 教會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Z. Ursinus는 教會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권징사역이 절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

¹⁰⁸ O. Weber, 칼빈의 교회관, p. 379.

¹⁰⁹ J. Calvin, Inst, III. 19, 13.

다. 110)

칼빈은 한편으로는 권징을 아주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볍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¹⁾ 이것은 罪에 대해 단호해야 할 것과 권징의 대상인 성도에 대해서는 구원의 제시와 함께 항상 은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說明된 것 처럼 권징사역은 단순히 잘못을 범한 信者를 징계하여 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聖經에서 보여주는 권징사역의 구원론적 참된 의의이며 또한 칼빈의 해석이기도 하다.

2. 요약

I. 論者는 이 論文을 통해 권징사역의 성경적인 참된 의미를 밝히려 고 한다. 현실의 한국교회가 권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숫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成長 했으며 외부적인 저력을 갖추고 있음이 認定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時代末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 하기 위해서는 敎會 스스로가 우선 올바르게 서야 한다. 바로 그 '올바르게 섬'을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선포와 함께 신실한 권징사역이 필수적이다.

¹¹⁰ Z. Ursinus,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83-85 II(3).

¹¹¹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p.164.

II.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 2장에서는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特性을 살펴보았다. 칼빈은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과 함께 人間의 전적무능을 主張하면서, 하나님께서 人間에게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敎會를 주셨음을 밝힌다. 그것은 곧 人間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敎會를 잘 유지하며 성장시키기 위한 신령한 方法으로서 권징사역이 없어서는 안된다. 敎會는 하나님으로 부터 주어진 성경말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III. 敎會는 人間들이 임의로 구성한 집단이나 조직체가 아니다. 敎會는 하나님이 친히 그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敎會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敎會에 질서와 品位를 요구하고 있으며 순결해야 함을 요구하셨다. 바로 그것을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권징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성도들 상호간에 권면하고 수용하는 권징사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은 회개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며 善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권징사역의 최종목표는 聖化가 된다. 참된 말씀선포와 권징사역의 시행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敎會를 기대할 수 없다.

IV. 제 4장에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장로교 헌법이 권징에 관련된 법조항들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명제도의 必要性和 그 실천

여부에 대해 고찰했다.

V. 뒤이어 제 5장에서는 現在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권징사역에 대한 갱신방안을 언급했다. 권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권징사역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역이다. 권징은 教會와 거기에 속한 전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따라서 성숙한 教會는 教會내에서 끊임없는 권징사역이 성도들 상호간에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권징사역의 재확립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요구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VI. 본 論文의 結論은 권징사역의 의미를 聖經의 교훈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教會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경험을 통해서 정립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실질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 바탕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권징사역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3. 제언

오늘날 우리 韓國 教會의 올바른 세워짐을 위해서는 권징사역의 절대 중요성을 느낀다. 권징에 대해 한쪽면, 즉 징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그 징계적 권징조차 순수히 말씀에 의거해서 시행된다기 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나 사사로운 人間關係로 말미암아 변색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敎會들 가운데는 아예 권징자체가 사라져버린 듯한 곳도 많다. 『사랑』이나 『관용』이란 말을 핑계삼아 권징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물론, 『사랑』이나 『관용』이란 敎會에 어울리는 말이며 아름다운 삶의 表現이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몸 된 敎會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다 할지라도 敎會는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中心한 사랑이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命令에 대한 무관심일 따름이다. 112)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정해주신 구제책을 어기는 것은 분명히 罪惡이다. 敎會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선포와 함께 지속적인 권징사역이 각 지교회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적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 敎會는 法的 절차에 따라 권징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전부 구원사역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內容이다.

권징의 無用性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요, 권징의 직권적 남용도 문제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 편만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敎會와 조그만 가정조차도 권징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질서를 가장 잘 유지해야만 할 敎會에서는 더욱더 권징이 있어야 한다. 113)

¹¹² J. Calvin, 『교회개혁의 필요에 관하여』, VII. 5.

¹¹³ J. Calvin, Inst, IV. 12, 1.

칼빈의 敎會論에서 목사직을 敎人の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큰 意味가 있다.¹¹⁴⁾ 이것은 목사 개인의 직위나 명예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순수히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重要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敎人の 공동체는 목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와 상응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福音의 선포는 목사들에게 위임되었으나 권징의 시행은 전체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전체교회가 그 권징사역을 행사하게 된다.¹¹⁵⁾ 물론 그 실제적인 주도는 그 사역을 주로 위임받은 장로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敎會의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들이 먼저 그 重要性을 깨달아 전체 敎人들에게도 敎育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권징사역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지레 걱정할 必要가 없다. 즉, 권징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된 敎會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 대해 대응하시며 책임지신다.

韓國敎會에 권징사역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表現되어 잘 적용되기를 원한다.

論文을 끝맺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記憶해 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¹¹⁴ O. Weber, 칼빈의 교회관, p. 71.

¹¹⁵ Z. Ursinus,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83-85 III.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7:24-27)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理由가, 위 성경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說明되어 있다.¹¹⁶⁾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보다가는 自己 생각과 의도대로 行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의 敎會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敎훈으로 받아야 한다.

論者는 순수한 말씀선포에 의한 권징사역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위에 선 우리 韓國敎會가 되길 바란다. 우리의 敎會가 聖經의 敎訓위에 올바르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려지길 기도 드린다. 아멘.

¹¹⁶⁾ 마태복음 7:22, 23,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BIBLIOGRAPHY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 Translated & Indexed by F.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Matthew, Mark, Luke*. Edited by Davi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 Traslated by A.W. Moris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Edited by David W. Torrence. & Translated by John W. Fras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3.

—————.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 Colossians*. Edited by David W. Torrence & Thomas F. Torrance, & Translated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 *Instruction in Faith*. 이형기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 제스트, 1986.

—————. *Tractate Theological of John Calvin*. 김진수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교회개혁의 필요에 관하여: 1544)

—————.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 . 『기독교 강요』(초판). 양낙홍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 . 『영한 기독교 강요』. 성문출판사역. 서울:기독교 성문출판사, 1990.
- 현 법.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고신)편. 서울: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3.
- Balchin, J.F.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Church*. Wheaton: Tyndale Harce Publishers, 1979.
- Berkhof, L.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8.
- Edwards, B.H. *Nothing But the Truth*. London: Evangelical Press, 1978.
- Guthrie, D. *New Testament Introduction*. London: The Tyndale Press, 1970.
- Harbison, E.Harris. *The Christian Scholar in the Age of the Reformation*. 2nd ed. Michigan: Grand Rapid, 1983.
-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Translated by G.T.Thomson. Grand Rapids: Baker, 1984.
- Hyma, Albert. *The Christian Renaissance*. 2nd ed. Connecticut: Hamden, 1965.
- .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Michigan: Grand

- Rapids, 1950.
- Jensen, De Lama. *Reformation Europe: Age of Reform & Revolution*. Massachusetts: D.C. Heath & Company, 1981.
- Kitch, M.J. *Capitalism & the Reformation*. London: Longman, 1974.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83.
- Ladd, G.E. *The Gospel of the Kingdom*.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Packer, J. *Under God's Word*. London: Marshall, Morgan, Scott, 1980.
- Praamsma. *The Church in the Twentieth Century*. Ontario: Paideia Press, 1981.
- Reid, W. Stanford. *The Reformation: Revival or Revolution*. New York, 1968.
- .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Michigan: Grand Rapid, 1982.
- Ridderbos, H. *Studies in Scripture & Its Authori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8.
- . *The Coming of Kingdom*. New Jersey: P/R Publishing Co., 1962.
- Snyder, H.A. *New Wineskins*. London: Marshall, Morgan, Scott, 1978.
- Ursinus, Z.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 Translated by G.W. Williard.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852.
- Vos, G. *The Kingdom of God & The Church*. New Jersey: P/R Publishing Co., 1972.
- Bengel, John A. *New Testament Commentary*. 뱁겔신약주석. 서문강 역. 서울:도서출판 로고스, 1991.
- Burrell, S.A. *The Role of Religion in Modern European History*. 서양 근대사에서의 종교의 역할. 임의환역. 서울:민음사, 1990.
- Clowney, Edmund P. *Living in Christ's Church*. 교회생활. 서원교 역. 서울:나침반, 1988.
- . *The Doctrine of the Church*. 이창우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1.
- Gonzalez, J.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기독교 사상사. 이형기역. 서울: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 Graham, W.F.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 Calvin*.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 Guthrie, D. *New Testament Theology*. 성경, 교회. 이중수 역. 서울:성서 유니온, 1987.
- Kuyper, A. *Calvinism*. 칼빈주의. 박영남역. 서울:세종문화사, 1982.
- Ladd, G.E.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성수 역. 서울:한국 기독교 연구원, 1982.
- . *The Pattern of New Testament Truth*. 신약의 중심 사

- 상. 이남종역. 서울:새순출판사, 1987.
- McKim, Donald K.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 Meeter, H.H. *Calvinism*. 칼빈주의. 박윤선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Murray, J. *Christian Baptism*. 기독교 세례론. 이길호역. 서울:CLC, 1986.
- Ridderbos, H. *The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엠마오, 1987.
- Robertson, A.T.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원어연구해설. 김상기역. 서울:벤엘성서간행사, 1984.
- Spitz, L.W.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사. 서영일역. 서울:CLC, 1983.
- Stauffer, R. *La Reforme (1517-1564)*. 종교개혁. 박건태역. 서울:CLC, 1989.
- Vos, G. *The Kingdom of God & the Church*. 하나님 나라. 정정숙 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1.
- Weber, 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서울:풍만출판사, 1985.
- Williamson, G.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나용화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 신내리. 칼빈주의-신학과 선교. 서울:성광문화사, 1987.
-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 신학지남, 1979. 봄, pp39-52.
- 오병세. 교회, 교육, 신학.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엠마오, 1988.

- 이종성. 칼빈. 서울: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8.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사. 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한신대학, 1984.
-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탐구당, 1990.
-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88.
- . 권징사역의 중요성. 제 78회 총회. 1993, 9, 20.
(인쇄:아세아연합신학대학. 1993, 10, 5)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성광문화사, 1977.
- . 급진종교개혁사론. 서울:느티나무, 1993.
- . 복구 르네상스와 개혁사상. 서울:성광문화사,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Discipline.

LEE, KWANG HO, Th. M.

Department of Theolog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biblical meaning of discipline. In examining the Korean Church in this respect, we discover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Church discipline. Most Korean Christians think of certain punishments when they hear about Church discipline.

Unfortunately Church discipline has almost disappeared from Korean churches. Since the Gospel has reached this land the church has grown so fast especially outwardly, but the need for discipline

remains.

Nowadays churches worldwide are expecting Korean churches to play a role in world mission. But if we will look inward, we will realize the weakness of our churches. This writer believes that the reason for this weakness is the lack of Church discipline. We have to follow the Word of God. When God stipulates standards for His church in the Bible, nobody can change them.

In this thesis, this writer researched John Calvin's theology for achieving church discipline. As we know, in John Calvin's time, the 16th century, the churches were very complicated just like today. So, it will be very beneficial to understand his theory of Church discipline.

2. The Soteriological Character in Calvin's Theology.

John Calvin emphasized the unique authority of the Bible. The Bible is the only written revelation from God, so without the Bible no human being can find the real truth.

And Calvin stressed the sovereignty of God. The Bible testifies that God is the Creator of whole universe and all the earth. Therefore God is the Lord of all, and all human beings should be His followers. But the first humans, Adam and Eve, denied God's will.

Because of that event sin came in this world.

Because of sin, all human beings are fallen and totally depraved. So, along with Adam and Eve, all humans are condemned to eternal death.

In spite of man's transgression God gave mankind His gracious plan, and decided to rescue some of them by His own choice.

God is pleased to save His chosen people through the church. In the Old Testament times He chose one nation Israel, and in the New Testament times He chose a faithful community, the Church. As God has given us His church, the church must grow according to His holy Will.

3. Discipline as the Soteriological Ministry of the Church.

The church has to have the good order and proper standards. And even though the churches are located in this world, they belong to heaven. Therefore the church should be holy and pure. When Jesus comes again, he will be the bridegroom and his church will be his bride.

So God gave the keys to His church to use them for discipline. We have to recognize why He gave them to us. God knows the weakness of His children. Because of our weaknesses, without those instruments

we could not stand by ourselves. By these instruments in the church, we can build the church of God in this world. We must also emphasize both preaching the Word and practising discipline. If there is no preaching and discipline, we never can expect a true church.

The result of church discipline is sanctification. In systematic theology, sanctification is very important. All church members strive for greater sanctification. As we said, we are very weak. And everyday we commit sins, so, we have to repent of our sins' day by day.

There are several ways for believers to repentant. First of all we must repent of our sins to God, and then to other believers. John Calvin say, the best person to talk to about one's sins is a pastor. Of course the pastor who listens of other believer's confession should be sincere and humble as the Bible teaches.

Through those kinds of efforts the whole church and individual believers can be progressively sanctified.

4. Disciplinary Laws in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order to expand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e writer sought to examine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But there

are so many divisions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every bran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has its own constitution. Even though these denominations have Presbyterian doctrines, there are slightly different provisions in their constitutions. So, it was not possible to study all of them for this thesis.

For that reason this writer selected one Korean church constitution. When he surveyed it, he found it has only juristic stipulations for Church discipline. So he examined many sentences which concerned Church discipline in the constitution.

5. Requirements and Suggestions for the Renewal of Church Discipline.

We have tried to correct the prejudice against Church discipline. Many Christians have wrong ideas about discipline. They think that disciplin is a negative thing in the church. Yet we need to know that discipline is very positive in the church.

Our church should mature through obedience to the Bible. If we really want to be mature, we have to practise the full meaning of Church discipline. Nobody should strongly insist on merely human ideas about Church discipline. Even though, their ideas are good in the human view point, they surely cannot be right in God's sight. So,

all believers have to have an attitude of learning from the Bible about discipline.

And, if there are some of wrong ideas and prejudices about discipline in the constitution, we must try to correct them according to the Bible. Of course all believers must follow the proper laws.

6. Conclusion.

As I have mentioned, Church discipline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establish God's church. There are no true churches without practising proper discipline according to the Bible.

In the twentieth century, so many perverted human ideas are influencing the churches, like materialism, immorality, pluralism etc. We have to watch to see if these ideas are corrupting the churches. And there are any of them, we must to remove them by practising discipline.

Some people say that the Christian church must accept everything. They think that the Christian God permits anything. But we cannot say like that because the Word of God teaches differently. God loves for His children to do good in His churches, but hates that which is bad in His churches.

The purpose of human life is to please God. And God wants to be glorified by His saints in His churches. So we have to sincerely follow God's Will in the churches. The church must be holy and pure. Even if it is difficult to be thus, still we have to try to be like that by practising continuous disciplines.

I pray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re-establishing the present-day Korean churches in true praxis. Amen.